은해사 한주 금용 스님

금용 스님은 ...
전남 곡성에서 출생했다. 1959년 구례 화엄사에서 정혜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그 후 일타 스님 밑으로 건당했다.
오대산 상원사, 문경 봉암사, 양산 통도사, 극락암, 부산 선암사, 범어사 등에서 안거했고, 총무원 규정 · 재무 · 교무부장과 불교신문 주간, 제8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일타 스님과의 인연 이후 줄곧 은해사에 주석하고 있다.

자기 최면은 자기 삼매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불법 최면

<佛法>

서울 시내에서는 몰랐다. 안개가 심한지. 나그네는 그저 날이 밝지 않아 그러려니 했다.
안개는 구름과 달랐다. 땅바닥에 붙어서인지 안개는 산을 넘지 못했다. 터널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안개가 자욱할 때도 있었고, 전혀 없을 때도 있었다. 터널을 두고 안개가 있고 없음에 따라 명암이 엇갈렸다. 차안(此岸)과 피안(彼岸)이 나뉘는 듯 했다.
안개 속을 한참 달려 영천 은해사에 도착했다. 나그네는 한주(閑主) 금용 스님을 만났다. 한주는 아무 소임이 없는 소임이다. 어른스님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한가한 소임이다. 스님은 20여 년을 은해사에서 '한가롭게' 살고 있다.
전남 곡성에서 태어나 자란 금용 스님은 지리산 화엄사에서 출가했다. 어릴 적 "절에 가면 공부 할 수 있다"던 말이 생각나 무작정 길을 나섰다. 곡성에서 구례까지 걸어서 찾아 간 화엄사에서 대처승이었던 정혜 스님을 은사로 스님이 됐다.
당시는 1950~1960년대 비구 · 대처 싸움이 한창이던 때였다. 스님이 출가한 때는 정화가 막 끝나고 통합종단 조계종이 출범하기 직전이었다. 금용 스님의 은사스님은 대처승이었으나 비구 종단에 합류했던 화동파(和同派)였다.
젊은 시절 스님은 간화선 수행에 목숨을 걸고 정진했다. 전국 선방을 돌며 존재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나갔다. 금용 스님이 오대산 상원사, 문경 봉암사, 양산 통도사, 부산 선암사 등에서 화두에 매달리며 보낸 시간은 이미 살아왔던 시간보다 길었다. 특히 스님은 양산 통도사 극락암과 부산 선암사에서 살 때 당대의 선지식이었던 경봉 · 석암 스님을 모시면서 많은 공부를 했다.
"스님, 경봉 · 석암 스님을 모시고 정진하실 때 일화는 없으셨습니까?"
"없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때뿐이지. (지난 일을) 되새김하지는 못해."
나그네는 금용 스님의 대답이 야속하지 않았다. 눈 푸른 납자가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한 발 내딛기 위해 치열하게 수행한 것을 단지 세속인의 이야기꺼리로 만들려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무례이기도 했다.
금용 스님은 1964~1967년 군대를 다녀왔다. 영천 부관학교에서 행정교육을 받고 의무단 본부사령실에서 복무했던 스님은 군에서 일생의 '업(業)'을 좌우한 경험을 했다.
전역 후 어느 날, 난데없는 총무원의 부름에 스님의 서울 생활이 시작됐다. 조계종 종정이던 고암 스님을 모셨던 스님은 1970~1980년대 견지동 일대를 풍미했던 도사였다.
스님은 당시 조계종 재무부장을 비롯해 규정부장, 한 때 불교신문 주간도 맡았다.
"스님, 수좌였던 스님이 행정승으로 살자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불러서 가보니 할 일이 많더라고. 내 공부도 좋지만 출가자로서 총무원을 바꾸는 것이 우선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열심히 했지."
공심(公心)으로 뛰어든 사판승 생활 동안 스님은 조계종단의 변혁기에 큰일들을 해냈다. 수좌답게 매사를 적극적으로 처리해냈다.
1970년대 조계종이 조계사와 개운사로 나뉘어 싸울 때 선봉에 섰던 것도 스님이었다. 금용 스님은 1980년대 신군부가 불교계를 짓밟은 10 · 27법난을 몸소 체험했다.
스님 표현을 빌자면, "불교계 나쁜 놈 43번째"가 금용 스님이었다. 온갖 고초를 받고 죽을 고비도 넘겼던 스님은 "남 탓 할 것 없다. 불교계의 근원적인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말했다.
"'싸우지 말고 비구는 수행을, 대처는 교화를 하며 합리적으로 살자'던 백양사 송만암 스님의 제안대로 됐다면 좋았을 텐데, 당시 젊은 비구스님들이 만암 스님 말을 듣지 않았지. 당시 비구들은 '불법(佛法)에 대처승 없다'고 주장했는데, 부처님 법에 대처승이 왜 없어? 부처님 당시 부처님 법력에 귀의했던 바라문이 지금의 대처승이고, 나한이 비구인데."
민감한 사안에도 걸림없는 금용 스님의 주장을 들으니 스님의 살아온 세월이 얼추 짐작됐다. 모난 돌은 정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었던 때 종단을 '개혁'한다고 또 다시 대중의 맨 앞에 섰다가 '졌다'. 열심히(?) 살았던 부작용으로 스님은 한 때 구치소에서 영어의 삶을 살기도 했다. (스님은 1984년 총무원 청사 침입을 주도했던 행동대장이었다.) 4개월 수감 뒤 집행유예로 풀려난 금용 스님은 그 길로 처음 출가했던 지리산으로 향했다.
지리산 영원사에서 6년을 살았다. 그곳에서 <법화경>을 만났다.
"전에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읽는 것 모두가 하나하나 마음에 들어오고 그때 시작한 <법화경> 공부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 글자를 본 것은 30여 년이지만 뜻에 들어간 것은 15년쯤 밖에 안돼. 그때부터 다시 번역을 시작했고. 번역을 두어 번 했는데 계속 교정 · 보완 중이야."
<법화경> 공부는 스님이 참선해 온 정진력으로 경전을 꿰뚫는 새 수행법이었다.
"<법화경>은 부처님 사상의 핵심이 담긴 수행경전이야. 흔히 만법귀일론이 법화경의 요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됐어. '만법귀일(萬法歸一)'이 '일귀하처(一歸何處)'까지 이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법화경>의 요체야. 무엇보다 <법화경>은 아뇩보리, 원만각(圓滿覺)을 얻는 것이 목표이지."
금용 스님은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한자로 무상정등정각이라 번역하는데 그 의미가 잘 전달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쉬운 말로 고쳐 번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보살, 열반, 삼매 등 한자어 그대로 쓰는 것도 좋지만 불교가 대중화되려면 용어부터 쉽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금용 스님이 만든 신조어가 무위자진(無爲自盡, 열반), 불법최면(佛法催眠, 삼매), 도사(導士, 보살) 등이다.
"열반은 쉽게 말하면 죽음의 세계를 살아서 느끼는 것인데, 함이 없는 즉, 죽을 것 없는 죽음. 이것이 열반 아니겠어? 또, 자기 최면은 자기 삼매이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일체 중생을 삼매에 들게 하니 불법최면이지. 보살은 지도자적 인물을 뜻하는 것이고."
스님은 "진리는 모두 하나로 통한다"며 "참선 간경 염불 등 수행법이 모두 <법화경> 안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법화경>에서 말하는 삼승(三乘), 즉 성문(聲聞) 연각(緣覺) 보살(菩薩)을 풀이하면 성문은 유위학(有爲學)이고 연각은 무위학(無爲學)이지. 성문과 연각까지는 참선 등을 통해 열반을 증득하기 위한 방편

한국 미래는 문무의 중도적 수용에 달려 있어

자칭 '불교계 나쁜 놈 43번째' … 법난 체험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슨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찰귀의 액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된다.

수월관음도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에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문품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사는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점안식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란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린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

2010년 드는 삼재시작 용띠, 쥐띠, 원숭이띠, 조심

삼재소멸과 닥처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묵는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쥐띠,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뱀띠,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금액 45,000원
문의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입금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 공급가격 별도 상담요)

자동차용호신불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 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30%할인)